

한국신화의 가족구성체계 연구(I)

- 비교신화 연구를 위한 시론 -

Family Relationship Dynamics in Korean Myths(I)

- A Comparative Approach to Myths -

김 대 숙*
(KIM DAE SOOK)

< 차 례 >

- I. 연구의 동기
 - II. 선행 연구의 동향
 - III. 본토본 무속신화의 가족관계 양상
 - IV. 가족관계의 상대적 범주화
 - V. 과제와 전망
- ※ 참고문헌

< 요 약 >

이 논문은 한국신화와 세계 여러 문명권 혹은 세계 여러 민족의 신화를 비교하는 비교신화 연구를 위해서 신화비교의 한 틀(기준)을 구성해보려는 시도의 일단이다. 그간 필자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들의 비교신화 연구의 경향이 여러 지역의 신화를 한국 신화를 중심에 놓고 내용을 상호 비교하는데 노력하였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풍부한 한국의 고대 서사시 자료를 통하여 신화 비교의 준거를 마련해서 그 틀 위에서 비교신화 연구를 발전시켜 보려는 것이다. 필자가 마련한 비교의 틀은 "가족"이라는 형태이다. 세계의 모든 신화가 가족간의 인물들을 중심축으로 하여 서술되고 있다. 신화 안에서 중심이 되는 가족관계(수평적 관계·수직적 관계) 그리고 갈등과 대립의 양상, 이동의 주체, 분리와 재결합의 과정에서 중심되는 역할 등 다양한 가족 구성안의 관계망을 추출해서 먼저 무속신화 그리고 국조신화의 순서로 진행하여 마지막에는 거시적으로 몇 개의 가족관계 유형을 그려내려는 것이다. 이러한 계획으로 본 논문에서는 먼저 본토본 무속신화 자료를 대상으로 해서 가족이라는 요소로 분석한 결과 두 개의 큰 범주를 설정하였다. 하나는 남녀 주인공이 미혼인 상태에서 정식 혼례를 거쳐서 결합하고 가족 구성원 내부에서 수평적 관계-부부관계가 중심축이 되고 외부로부터 갈등이 야기되는 여성의 역할이 큰 일월노리푸념, 성주본가(넓히면 심조풀이, 칠성풀이) 계열과 / 또 하나는 정식혼례가 아닌 남녀의 만남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수직적 관계-부자·부녀 관계가 중심축이 되며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채석본풀이, 바리공주, 시루말(넓히면 장자풀이까지) 계열로 크게 나누어 놓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차별을 이분법적인 자세로 묶어 놓지 않고 그냥 열어두겠다. 계속해서 제주도 무속신화와 국조신화 등의 다른 신화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한국신화의 가족구성체계를 좀 더 치밀하게 조직해 나가도록 하겠다.

I. 연구의 동기

근자에 와서 한국구비문학 분야에서 신화연구가 괄목할 만한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비교신화연구가 더욱 그렇다. 필자는 “여인 발복설화의 연구”¹⁾ 논문을 쓰면서 민담의 신화적 성격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는데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본인의 주된 관심이 신화연구에 있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신화에 직접적으로 -민담의 신화적 기원을 밝히는 등의 우회적인 방법이 아닌 - 접근하기로 작정하면서 선택 한 방식이 우리 민족의 신화를 세계의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권의 신화와 비교연구하는 길이었다. 그래서 먼저 폴리네시아 지역의 마우이신화를 한국신화와 연결시키는 작업²⁾ 해보고 그 다음으로는 아메리칸 인디언 신화로 관심이 옮겨갔다. 왜 인디언 신화인가? 하는 의문이 꼭 필요한지는 모르겠으나 필자 자신이 거쳐간 과정이니까 굳이 피력한다면 필자가 신화연구에 관심을 가진 시기와 비슷하게 구비문학 연구에서 신화연구가 고조되고, 또 필자가 비교연구라는 방식을 택하기로 한 즈음에 아니면 그보다 조금 앞서 비교신화 연구의 논문들이³⁾ 쏟아져 나왔는데 그 대부분이 만주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지역의 신화와 우리 신화를 비교하는 내용이 다수를 차지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필자는 동아시아 지역은 이미 다른 연구자들이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 또 한문 보다는 그나마 영어 쪽이 낫겠다는 자각에서, 더불어 아메리칸 인디언 문화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계통적으로는 우리 문화와 친연성이 있으리라는 기대 등으로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아메리칸 인디언 신화연구도 예상한대로 결코 만만치 않았다. 세차례에 걸친 미국 여행과 도서관 순례의 결과, 필자 보다 앞서 인디언 설화에 관심을 가졌던 선학들이 왜 별다른 연구 결과를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갔다.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모색한 끝에 일단 에스키모 신화연구로부터 시작해보기로 작정하였다. 그런데 폴리네시아 신화를 거쳐 에스키모 신화까지 가는 와중에서 서서히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다가는 결국 여러 지역의 신화 자료들을 비슷한 내용끼리 맞추어보는 작업 이상으로는 진전되지 않겠다는 걱정이 들었다. 그래서 개별의 비교신화 연구 작업을 일단 멈추고 어떤 비교의 틀을 하나 만들어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오게된 사정을 일일이 상세히 설명하기는 어렵겠다. 그래서 그저 서론의 결론격이라 할까 우선 여기서 이야기한다면 “가족”이라는 요소에 주목하게 되었다. 한국신화는 거의 대부분이 가족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가족은 인간이 집단과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기초적인 형태이고 그 안에 관계 제도 경제 정서등을 포함하는 사회총체적이고 문화적인, 역사적 현상이다. 세계 모든 문화권의 신화 역시 가족이라는 인간관계를 중심축으로 서술된다. 한국신화를 중심에 놓고 풍부한 자료들을 가족관계라는 구조로 유형화해서 다른 지역의 신화와 비교하는 작업의 좌표로 삼는다면 한국신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밝혀 내고 나아가서 외국신화의 신화적 성격도 좀 더 정확하게 추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필자 : “여인 발복설화의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88.

2) 필자 : “한국신화와 하와이 및 폴리네시아 신화의 비교연구” 『국어국문학』 111, 1994.

3) 김현선 “북방민족과 한국의 건국신화 비교” 『경기어문학』 9집, 경기대 국문과, 1991.

서대석 “한국신화와 만주족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 고전문학연구회, 1992.

“백두산과 민족신화” 『백두산 설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노성환 “한일 왕권 신화” 울산대 출판부, 1995.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1997.

II. 선행 연구의 동향

이렇게 신화 속에 가족이라는 요소를 붙잡고 나서 생각을 거듭하는 과정 속에서 필자 개인적으로는 “여인 발복설화의 연구” 논문에서 ‘부녀의 분리와 재결합’의 구도로 ‘내 복에 산다’ 설화를 읽었을 때 이미 가족관계를 많이 의식하고 있었구나 라고 해석하였지만 뒤이어 관련되는 논문들을 찾아가는 도중에서 앞선 선행학들의 연구에서 가족관계가 여러차례 언급된 것을 찾아볼 수 있었다. 김열규교수는 1985년에 <한국문학의 두 문체-원한과 가계->라는 책을 편하면서 그 서문에서 “한국의 상고대 신화는 왕조 내지 왕권신화이고 그것은 동시에 가계신화 또는 가조신화(家祖神話)라는 성격을 갖추고 있다. 한국의 상고대 신화는 ‘집안의 서사체’이면서도 조손(祖孫)삼대에 걸친 ‘삼대의 서사체’이다. 이에 동명왕 신화와 단군 신화가 해당된다.....세 세대 사이의 줄거리 구성을 ‘가계적 풀꽃’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있다. 필자가 시도하려 하는 신화를 가족관계 유형으로 정리하는 작업은 서대석교수의 연구에서 이미 상당 부분 진척되었다. 앞서 발표된 서대석 교수의 신화관련 연구성과들을 개설식으로 정리한 “한국신화의 개관”⁴⁾ 부분에서 가족과 연관되는 설명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북방신화는 천신계의 남성과 지신 또는 수신계의 여성과 혼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시조의 출생과 즉위가 이어진다. 즉 혼례-출산으로 전개된다. 반면 남방신화는 시조의 탄강이 먼저 제시되고 시조의 혼례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즉 시조의 부모가 의인화되어 나타나지 않고 하늘과 땅의 결합을 상징하는 분위기만 서술된 상태에서 시조는 알로 탄강한다. 그리고 시조가 왕으로 즉위한 후 시조왕의 혼례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즉 남방신화는 탄강-혼례로 전개되고 있다. 시조의 출현 이전에 시조 부모의 혼례과정이 기술된다는 것은 시조왕이 개국한 국가가 이 지상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국가가 아니고 그보다 먼저 시조부모가 다스리던 국가가 존재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반면 시조의 부모가 등장하지 않고 시조가 탄강하고 시조의 즉위와 혼례가 기술되는 신화는 그 지역에서 역사상 처음으로 국가가 세워지고 첫 번째 국가의 통치자가 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와같은 분석은 건국신화 시조의 가족관계를 국가창업의 변별수단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은 필자가 삼공본풀이 신화를 중심으로 한국 여성신화에 나타나는 남방적 요소를 검토하는 논문⁵⁾에서 “북방계 신화가 주로 남성신이 주인공이고 남자가 여자를 찾아 움직이며 결혼 보다는 이세의 탄생이라는 종적인 관계가 강조되는데 비하여 남방계 신화는 여성주인공이 움직여서 남자쪽으로 이동하고 결혼이 중심화제가 되면서 두 주인공의 결합은 복합문화를 표현한다고 추정된다” 고 본 바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다. 서대석 교수는 계속해서 윗 글의 무속신화 부분에서 성주신화의 특징을 부부의 사랑을 중심으로 한 가정의 수난과 행복을 다루고 있어서 이러한 무속 신화의 특징은 건국신화에서 보여 주는 부자 중심의 사고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칠성풀이>의 연구”⁶⁾에서 서대석 교수는 신화와 가족의 문제를 조금 더 미시적으로 접근시켜 “<칠성풀이>는 가정의 탄생, 가정의 시련, 시련의 극복, 가정의 완성이라는 서사적 전개를 갖춘 가정신화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정리하고 있다. 이밖에도 필자가 미처 살펴보

4) 서대석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5) 필자 : “한국여성신화에 나타난 남방문화적 요소” 『국사관논총』 제6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6) 서대석 “칠성풀이 연구 -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도 -” 『진단학보』 65집, 1988.

지 못한 선행 연구가 있다면 언제든지 계속해서 받아 들여야 할 것이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한국신화를 가족구성의 체계로 크게 거시적으로 유형화해 보고 싶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는 신화 자료 하나하나를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세밀하게 읽고 정리해 나가더라도 마지막에는 그런 결과들을 합치고 섞어서 커다란 몇개의 범주를 설정해 보고 싶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같은 길을 가는 연구자 여러분의 많은 도움이 간절히 필요하다.

Ⅲ. 본토본 무속신화의 가족관계 양상

1. 대상 자료의 설정

구체적인 작업에 들어가서 우선 결정해야 할 일은 한국신화와 관련된 자료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한국신화는 크게 국조신화와 무속신화로 나뉘어 진다. 전체를 한꺼번에 다룰 수도 있겠으나 앞에서 밝힌 바와 같이 자료를 미세하게 읽어나간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신화 전체를 몇 덩어리로 쪼개서 진행하기로 한다. 먼저는 국조신화부터 착수하고 싶었다. 무속신화에 비할 때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에 문헌에 정착되었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그래서 '가족'을 거론한 선행 연구에서도 주로 국조신화를 대상으로 하였다고 생각되는 이유들에서 국조신화부터 시작할까 하였으나 신화자료 대부분을 일차적으로 점검한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무속신화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그 까닭은 무속신화가 아무래도 고태성이 있을 것이라는 느낌과 결국에 가서는 합쳐지고 섞여지리라는 전망 때문이다. 그런 사정에서 무속신화부터 시작하지만 무속신화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또 본토본 무속신화와 제주도 무속신화 사이에 성격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되어 본 고에서는 우선 먼저 본토본 무속신화부터 시작하겠다. 필자가 무속신화에 밝지가 않아 걱정이 많다. 그래서 무속신화 자료는 서대석 교수가 지은 [한국의 신화]에 전적으로 의존하겠다. 앞 책에서 골라 뽑은 본토의 무속신화는 열가지이다. 나열해 보면 1. 창세가 2. 시루말 3. 일월노리푸념 4. 성조풀이(동래본) 5. 성주본가(황우양 씨) 6. 제석본풀이 7. 바리공주 8. 칠성풀이(줄포) 9. 장자풀이 (줄포) 10. 손님굿 (김동연) 등이다. 이 열 편을 연구대상으로 하는데 여기다가 형제간의 관계가 중심 내용을 이루는 숙영랑.앵연랑신가⁷⁾를 첨가 하겠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열 한편의 신화를 앞 책에 수록된 순서에 의해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한다.

2. 창 세 가

창세가의 중심 인물은 미륵님과 석가님이다. 두 사람은 물론 가족관계가 아니다. 미륵님은 '탄생하고' 석가님은 '내와서서' 라고 서술된다. 미륵과 석가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그들의 부모가 누구인지 알 수 없다. 미륵이 인간을 창조했다. 미륵이 하늘에 축수해서 양쪽 손에 금벌레 은벌레가 각각 다섯 마리씩 떨어져서 그 벌레가 자라서 각각 남녀가 되었고 그들이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다. 이 인간들의 부모가

7)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 수 없다. 창세신화는 가족구성체계 연구를 위해서는 따로 모아서 검토해 보아야 할 것 같다.

3. 시루말

‘시루’는 ‘수리, 수로, 실례, 수루’ 등으로 불리웠고 고문헌의 용례를 통해 볼 때 ‘밝음, 으뜸, 높음, 처음’의 뜻을 가진 말이었으리라고 추정된다.⁸⁾ 시루말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창세신화이다.

중심인물은 천하궁 당칠성과 지하궁 매화부인이다. 천하궁 당칠성이 지하궁당 내려와서 가구적간 인물추심 다니다가 매화플 매화부인을 만나 하루밤을 지내고 돌아갔다. 당칠성이 간 연후에 그달부터 태기있어 십삭만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형은 선문이고 동생은 후문이고 성은 성신이다. 두 형제가 십 여세가 되어 천하궁으로 아버지를 찾아간다. 당칠성이 두 형제를 만나자 먼저 성과 이름을 묻고 큰아들은 대한민국을 작은 아들은 소한국을 차지하게 한다. 시루말에서는 가족관계가 당칠성과 매화부인이라는 부부와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두 아들로 이대가 전개된다. 남자는 천상적 존재이고 여자는 지상의 대표자이다. 남자가 움직여 여자를 만나고 간다. 남녀의 동품과 자식(쌍둥이 아들)의 탄생만 있지 혼인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간다. 아이들의 어머니는 남자를 찾아가지 않는다. 등장 인물들 간에 뚜렷한 갈등이 없다. 작은 갈등이 있다면 선문이 형제를 글동접 아이들이 아버지 없는 자식이라고 놀린 것 정도이다. 작품 내부에서 누가 어떠한 성격의 혹은 직능의 신이 되었는지는 언급이 없다. 이 신화를 구성하는 가족관계는 부부관계와 부자관계가 모두 나타나는데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비교한다면 부자관계가 부부관계 보다는 중요하게 보인다.

4. 일월노리푸님

공산선비가 명월각씨에게 삼년간 공을 들여 장가를 갔다. 색씨를 집으로 데려온 후에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는데도 색씨결을 떠나지 못해서 벌이를 하러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하루는 공산이가 나무를 하러 가게 되어 명월각씨가 자기 얼굴을 그려 주었는데 나무가지에 걸어 놓았던 화상이 바람에 날려 아래턱에 사는 배선부네 집에 떨어졌다. 배선부가 보니 옷턱에 사는 명월각씨가 너무 예뻐서 배에다 생금을 싣고 내기장기를 두러 갔다. 공산이가 연거퍼 세 번을 쳐서 각씨를 빼앗기게 되었다. 각씨가 배선부로부터 닷새의 말미를 얻어서 그 사이에 공산이 바지 저고리에 포육을 누벼주고 명주실 한 꾸러미와 바늘 한 쌍을 넣어주고는 배선부를 따라 살려 가던 중에 공산이를 섬 중에 내려 놓고 갔다. 공산이는 먹을 것 없는 섬 중에 살면서 제 옷을 뜯어 소고기 포육을 꺼내먹고 포육이 떨어지자 명주실과 바늘을 가지고 낚시를 만들어서 고기를 낚아 연명했다. 그러던 중에 옥황전에 죄를 짓고 잡혀간 영지학의 새끼가 굶어 죽게 되어 공산이가 낚은 고기를 나누어 먹여 살려 놓았더니 죄가 풀리어 내려 온

8) (A) 又移都於白岳山阿斯達 又名弓[一作方]忽山 又今彌達(<삼국유사> 기이, 고조선)

(B) 九月山：在縣西十里即阿斯達山 一名弓忽 一名飯山 一名三危 世傳檀君初都平壤 後又移白岳 即此山也 至周武王封箕子於朝鮮 檀君乃移於唐藏京 後還隱此山 化爲神(<新增東國輿地勝覽> 卷42 文化縣 山川)

영지학이 제 새끼를 살려준 은공의 보답으로 공산이를 업어다 육지에 육지에 내려 주었다. 공산이는 거지가 되어 얻어 먹고 다녔다.

한편 배선비의 집에 간 명월각씨는 말도 않고 웃지도 않더니 까닭을 묻는 배선부에게 거지잔치를 사흘만 하여주면 말을 하겠노라고 했다. 그래서 배선부는 거지잔치를 열어 주었고 잔치에서 공산이와 각씨가 다시 만났다. 각씨가 남자들에게 구슬옷을 입어보는 시험을 제의하여 공산이는 그 시험을 통과하고 배선부는 그 옷을 입고 중천에 올라갔으나 벗는 재주를 몰라서 거기서 죽어서 소리개가 되었다. 공산이와 명월각씨는 한데 모여 살다가 죽어서 일월신이 되었다.

일월노리푸님의 중심이 되는 가족관계는 부부이다. 중심 인물인 공산이와 명월각씨는 서두에서 둘 다 미혼으로 등장해서 혼인하는 절차를 거쳐 부부로 맺어진다. 혼인은 남자가 여자쪽으로 장가들러 가고 그 다음에 여자를 남자쪽으로 데리고 오는 형태이다. 부부 한세대만 나타나고 두 사람 각각의 위 아래 즉 조상이나 자손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다. 부부를 지칭할 때는 공산이와 명월각씨라는 순서로 거듭 서술되지만 신화의 내용에서 보자면 명월각씨 즉 아내 쪽이 중심인물이다. 혼인이 이루어진 것도 남자쪽이 여자쪽에 공을 드린 결과이고 같이 살면서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좋아서 옆에서 떠나지 못하는 지경이다. 공산이가 물색없이 내가에 끌려들어가 아내를 뺏기게 되었을 때나, 공산이를 섬 중에 놓고 갈 때나 또 마지막의 결정적인 부분에서나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모면하도록 하는 지혜는 여자쪽 즉 명월각씨로부터 나온다. 서사적 전개는 부부의 분리와 재결합의 구도로 짜여져 있고 인물간의 관계는 우부현녀 주제로 읽을 수 있다. 갈등의 동기는 각씨의 미모이고 갈등을 유발하는 인물은 가족 외부의 남자 배선부로 그는 본래의 가족을 해체시키고 여자를 빼앗아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자 하지만 여성쪽의 적극적인 저항으로 실패한다. 두 남성간에는 세력의 차이가 보이고 여성은 남성쪽 보다 지혜로운 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구슬옷의 시험에서 신이로운 능력을 보여준다. 일월노리푸님의 중심이 되는 가족관계는 수평적 관계이고 여성쪽이 우위에 있으며 한 세대만 나타난다. 서사 전개는 가정의 파괴와 복구로 진행된다.

5. 성조풀이 (동래본)

성조풀이가 시작되는 시간적 배경은 삼황오제 시절이고 공간적 배경은 서천국으로 설정된다. 주인공은 성조님과 계화부인이다. 성조의 부친은 천궁대왕 모친은 옥진부인, 조부는 국반왕씨 조모는 월명부인이고 외조부는 정반왕씨 외조모는 마야부인이다. 성조의 부모가 나이 사십이 가깝도록 슬하에 자식이 없어서 복사에게 문복하여 불전에 치성을 들여 아들을 얻었다. 성조가 태어났을 때 모친이 관상객을 불러 아기의 관상을 보였는데 자라서는 전처를 소박하고 18세에 황도점으로 3년간 귀양을 가리라는 예언을 들었다. 성조가 병 없이 자라 15세가 되어서 매우 총명하고 유식한 청년으로 마침 지하궁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이 먹을 것은 풍족하나 집이 없어 고생하는 형편을 알고는 지하국으로 내려가서 나무를 베어 집을 지어주어 자신의 이름을 누만년 전하리라고 작심하고 부모양위의 허락을 얻어 지하국으로 내려 왔다. 성조가 지하국에 내려와 무주공산에 다달아서 보니 온갖 나무가 다 있으되 나무마다 다 임자(산신 당산 오작 국사 등)가 있어 감히 베일 수가 없어 천상옥경에 올라가 옥

황님께 상소를 올렸다. 옥황님이 성조의 뜻을 기특히 여겨 제석궁에 하교하여 솔씨 서말닷되 칠흠오작을 내려 주어 그 솔씨를 받아 지하궁에 여기저기에 심어놓고 환국하니 바야흐로 성주의 나이가 18세가 되었다. 그 해 성조는 황희궁의 공주와 혼인을 맺었으나 아내를 소박하고 주색에 빠져 조정 간신(諫臣)들의 간청으로 황토섬으로 3년간 귀양을 가게 되었다. 유배를 간지 삼년이 지나니 가져간 양식이 다 떨어져서 송피를 벗겨 먹고 미역을 캐어먹어 한참을 화식을 하지 않아 온 몸에 털이 나서 짐승인지 사람인지 분간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마침 갑자년 춘삼월이 되었을 때 청조새 편에 계화부인에게 편지를 보내어 귀양에서 풀리게 되었다. 성조를 맞으러 간 관현들이 성조님께 인삼 녹용과 고량진미를 해 먹이니 온 몸의 털이 다 빠지고 본래의 모습이 되었다. 집으로 돌아온 성조는 계화부인과 부부의 정을 회복하고 아들 다섯 딸 다섯을 얻게 된다. 성조가 나이 칠십이 되어 열 자식을 거느리고 지하궁에 내려와서 사철(沙鐵)을 일여 풀무질을 해서 온갖 연장을 만들고 서른세명의 목수를 골라 오행과 괘괘에 맞추어 집을 짓고 성조님은 입주성조 되시고 계화부인은 몸주성조 되시고 아들 다섯은 오토지신을 마련하고 딸 다섯은 오방부인을 마련하고 도대목은 천재만액 일백갑살 오방해살을 막는 책임을 맡겼다.

성조풀이의 중심인물은 안심국 성조씨와 계화부인이다. 성조씨를 중심으로 위로 부모, 조부모 양대가 소개되고 아래로 아들, 딸이 등장하고 있으니 사대가 보이지만 신화 내부에서 역할을 보이는 것은 성조내외와 아들딸이고 성조씨 부부가 가족관계를 대표한다. 성조씨의 내력은 마치 '영웅의 일생'의 주인공과도 같이 출생담에서 중년무자, 기자치성, 태몽, 관상, 예언 등이 서술된다. 서사전개 과정에서는 부부의 이합과 부모자식간의 이합이 양쪽 다 벌어지지만 핵심이 되는 갈등이 관상가도 예언하였듯이 성조씨가 새덕을 소박한 실수로 야기되고 있으므로 부부의 이합이 주된 주제이고 부모자식간의 이합은 거기에 부수되어 따라오고 있다고 판단된다. 부부의 분리와 재결합의 전 과정에서 성조씨가 중심이 되어 서술 되지만 실제로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데는 계화부인의 역할이 크다. 성조님이 황토섬에 귀양가서 기약한 3년이 훨씬 지나 먹을 것이 다 떨어지고 짐승과도 같은 지경에 이르렀을 때 청조새를 통하여 계화부인에게 기별을 전한 덕에 비로소 돌아올 수 있었다. 부부의 이합에서 움직이는 인물은 남자쪽이다. 그리하여 마지막에 성조님은 입주성조 계화부인은 몸주성주가 된다. 계화부인의 친족으로는 아버지가 황희왕이라고 알려지고 있을 뿐이다. 성조부부의 자식은 아들 다섯 딸 다섯으로 다복하게 두지만 부모의 중요한 사업인 집짓기를 돕고 오토지신, 오방부인이 되는 일 밖에는 따로 어떤 사건은 만들지 않는다. 성조풀이 무가 역시 성조님과 계화부인, 즉 부부관계가 중심축이다.

6. 성주본가 (황우양 씨)

천하궁의 천대목신과 지하궁의 지탈부인이 백년 가약을 맺어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이가 관옥같은 얼굴에 두목지 풍채에 소진같은 언변에 나무에도 눈을 뜨고 돌에도 눈을 떠서 상통천문 하달지리 육도 삼략 구궁팔괘, 둔갑장신을 마음대로 하더니 갑자기 새동풍(새바람)이 끝임없이 불어와서 성조신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때 성주의 복안을 이룰 자가 천하궁에는 없고 지하궁 황산 밑에 사는 황우양씨 밖에는 없어서 채사를 보내어 잡아오게 하였다. 황우양씨는 천하궁의 분부를 거역하지 못하여 가기는 가겠

으나 연장이 없다는 핑계로 사흘간의 말미를 얻었다. 황우양씨가 가기가 싫어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부인이 그 사연을 알고는 아무 걱정 말라고 남편을 달래어 밥을 먹고 잠을 재운 후에 천하궁에 소지를 한 장 올려 쇠 열 닢말을 하사받아, 풀무, 툭, 자귀, 떡통, 대패, 등 온갖 연장을 만들어 놓고 사철의 북 일습을 다 갖추어 나귀에 실어놓고 남편을 깨워 어서 떠나기를 재촉하였다. 황우양씨가 출발할 때 부인이 한가지 당부하하였는데 가는 도중에 누가 묻든지 말대척을 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황우양씨가 황산뜰을 지나 소진뜰에 다달아 소진랑을 맞았는데 소진랑이 아비없는 후례자식이라고 욕을 하는 바람에 말대답을 하게 되고 소진랑의 간계에 넘어가 의복을 바꾸어 입었다. 두 사람은 헤어져 황우양씨는 천하궁으로 일을 하러 가고 소진랑은 황우양씨의 부인이 일색이라는 말을 듣고 황산뜰로 내려갔다. 부인이 문을 닫고 쇠를 채우고 저항하였으나 소진랑이 온갖 귀신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와 부인의 목에 칼을 대고 사로 잡았다. 소진뜰로 간 부인은 몸에 귀신이 집혔다는 핑계로 삼년 후를 기약하고 개똥밭에 구멍을 파고 그 속에서 구메밥을 먹으면서 연명하고 있었다. 황우양이 꿈자리가 사나워 문복을 하였더니 자기집에서 벌어진 일을 그대로 일러주는 것이었다. 황우양씨는 하던 일을 재촉하여 급히 마치고 돌아와보니 집터는 썩밭이 되어 있었다. 황우양이 주춧돌을 베고 잠을 자다 갈가마귀의 도움으로 부인의 한삼을 보고 소진뜰로 내려가서 부인과 모의하여 소진랑의 항복을 받았다. 부부는 황산뜰로 돌아와 남편은 성주가 되고 아내는 지신이 되었다.

성주본가 역시 부부가 중심축이다. 부부의 분리와 재결합으로 진행되고 부부 양쪽이 모두 다 움직인다. 갈등 요소는 여성쪽의 미모 타이고 외부의 남자가 기존의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새로운 가족관계를 모색하지만 실패한다. 문제 해결의 열쇠는 항상 아내쪽이 쥐고 있다. 앞부분에서 황우양씨가 뜻하지 않게 천하궁으로 가게되어 밥도 못 먹고 잠도 못자고 근심에 싸여 있을 때 내막을 알고난 부인이 남편을 먹이고 재워놓고는 천하궁에 소지를 올려 쇠가루를 얻어 온갖 연장을 만들어 주고 그 밖에도 타처에서 지별 제반 용구를 갖추어 준다. 천하궁과의 소통 기능도 남자 보다 낫다. 뿐 만 아니라 길을 가면서 있을 함정을 예견하고 대응책을 당부하기까지 한다. 그 내용이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재난임을 일러주는 것으로 보아서는 현명한 여인의 지혜 정도가 아니다. 소진랑의 말굽 소리를 듣고는 도적임을 알아챈다. 소진랑이 황우양을 속여 바꾸어 입은 속적삼을 담 안으로 던졌어도 부인은 자기 남편의 체취가 아니라고, 속이 넘어가지 않는다. 소진랑의 용력을 못 당해서 사로잡힌 뒤에도 그 당장은 시아버님의 친기를 핑계 삼아 그리고 소진뜰로 끌려가서는 자기 몸에 일곱 귀신이 집혔다고 소진양을 은근히 협박하여 자신의 의지를 지켜나간다.

성주본가의 중심축은 앞서 말한대로 부부관계이면서 관계 내부에서 부인 쪽이 남편보다 우월해 보인다. 특히 쇠를 다룰 줄 아는 기술이 주목된다. 부부가 다시 해우했을 때 황우양씨는 자신이 천하궁에서 집을 짓고 있는 동안에 부인은 무슨 재주를 배웠느냐고 묻는데 부인은 '천하궁으로부터 누에를 얻어 직조기술을 익히고 남편의 의복을 지었다'고 대답한다. 부부는 제 각각 사람이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의식주 가운데 두 가지에 진력한 것이다. 부인이 천하궁으로부터 누에를 하사받아 남편의 의복 일습을 지은 부분은 [삼국유사] 선도산 성모설화에서 '사소공주가 일찍이 여러 천선(天仙)을 시켜 집을 짜서 붉은 색으로 물들여 조의(朝衣)를 만들어서 그 남편에게 바쳤다.' 라는 기사를 연상시킨다. 부부는 죽은 후에 남편은 성주가 되고 아내는 지신이 된다. 역시 부부신이다.

7. 제석본풀이

제석본풀이는 본토에서 전승이 가장 활발한 무속신화이고 신의 직능으로 볼 때는 생산신 신화이다. 무속신화 가운데서는 대표적인 삼대기 신화이다. 서사전개 과정에서는 석가여래와 당금아기 두 사람 즉 부부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지만 신화적 성격으로 본다면 석가여래와 삼불제석(형불, 재불, 삼불)간의 관계 즉 부자관계가 더 의미가 있겠다. 삼대기가 짜여지는 내력은 다음과 같다. 서천국왕 왕부설 부부가 늦도록 자식이 없어서 기자치성을 들어서 석가여래를 얻는다. 석가여래의 탄생에는 성조풀이의 성조님과 유사하게 기자정성 태몽 적강화소 등이 부연되고, 십세 십일세에 부모 양친을 잃는다. 한편 조선국 성도 성안에 이부상서 부부가 아들이 구형제인데 딸자식이 없어서 기자치성 끝에 당금아기를 얻는다. 당금아기 탄생에도 태몽 적강화소 등이 나타난다. 당금아기는 부친과 오빠들은 귀양살이차 모친은 명산대찰에 기도하러간 사정으로 가족과 분리되어 혼자 남는다. 두 남녀의 결합은 혼인과정도 없이 남자쪽의 일방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석가여래와 당금아기 사이에는 일월노리푸님의 공산선비와 명월각씨 또 성조풀이, 성주본가의 부부와 같은 애정이나 신의가 드러나지 않는다. 남자는 일방적으로 잉태를 시키고 떠나고 여자에게는 출산과 양육 그리고 남편을 찾아가서 가정을 이룩해야 하는 의무가 남는다. 여기까지는 동명왕 신화와 무척 닮았다. 남자가 먼저 여자쪽으로 움직이고 나중에는 여자가 남자쪽으로 움직인다. 여자가 아들들을 이끌고 남자를 찾아 갔기에 두 남녀는 정식으로 부부가 되고 가정은 완성된다. 신직은 아들들이 받는다. 제석신은 수(壽)와 복(福)을 주는 신이고 당금아기는 삼신--생명을 관장하는 신이 된다.

8. 바리공주

바리공주 신화는 저승신의 유래를 설명한 무속신화이고 제석본풀이 신화와 더불어 본토에서 가장 전승이 활발한 무가이다. 바리공주 신화에는 대왕마마-중전마마 부부와 바리공주로 대표되는 칠공주, 두 세대가 있고 그 다음으로 바리공주와 무장신선 사이에서 태어난 일곱아가기가 있다. 외손자까지 모두 하면 삼대기가 된다. 이 신화가 진행되면서 세 개의 가정이 성립된다. 바리공주 부모와 바리공주 형제가 만드는 가정, 바리공주와 양육자 비리공덕 할아버지와 비리공덕 할머니가 만드는 가정, 그리고 바리공주와 무장신선 그 사이에 난 일곱아가기가 만드는 가정이다. 삼각형이 세 개인 셈이다. 가정마다 그 중심에는 바리공주가 있다. 여러 갈래의 가족관계 가운데 신화의 핵심을 일으키는 가족관계는 대왕마마와 바리공주, 부녀관계이다. 부녀는 두 번 헤어졌다 만난다. 바리데기 신화는 다양한 통로로 모색되었던 선행 연구에서 이미 지적되었던 바와 같이 한국신화 가운데 매우 특이한 유형이다.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두드러 지는데 아버지와 딸 사이에 사고가 발생하고 사건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버지 쪽에 있다. 대왕마마가 대개년을 못 기다리고 궤결년에 혼인을 해서 예언대로 아들없이 딸만 계속해서 태어난 것인데 그 화풀이를 죄 없는, 갓 태어난 일곱째 딸에게 뒤집어 써우고 있다. 일곱째 딸은 버려진다. 기아모티프는 전 세계적으로 신화에서 자주 보이는 화소이다. 손 쉽게 오디프스 신화를 상기해 보면, 바리데기의 불행은 원인 부분에서는 오디프스에 비하여 억울한 편이고 재난 부분에서는 덜 가혹하다. 그 이

유는 예언의 내용이 가지는 무게 때문이다. 세계 여러 신화에서 기아모티프의 주인공이 되면 일단 영웅권으로 진입이 되었다고 우선 분류될 수 있겠는데 그 대부분이 남성이다. 바리데기처럼 딸이면서 잔인하게 버려지는 신화의 주인공을 에스키모 신화에서 볼 수 있다. 에스키모 신화의 주인공인 새드나 역시 지하국의 여신이 된다.

딸 만 거둬 태어나 화가 난 아버지는 자신의 실수는 외면하고 일곱째 딸을 내다 버리라고 명령한다. 예대신이 공주를 까치여울 피바다에 던졌다. 아버지와 딸의 첫 번째 분리이다. 막내딸만 가족에서 분리될 뿐, 대왕마마 중전마마 여섯명의 공주가 이루는 가정은 그대로이다. 딸은 석가세존의 도움으로 양육자를 만난다. 또 하나의 가족이 구성된다. 세월이 흘러 바리공주가 15세가 되었는데 국왕부부가 죽을 병에 걸려 삼신산의 약려수를 길어다 먹어야만 낫는다는 점복이 나왔다. 부모가 버린 아이를 찾는다. 부녀는 이제 만나게 된다. 여기까지는 부녀의 분리와 재결합의 구도로 읽을 수 있다. 버려졌던 딸이 양친을 살리기위해 떠난다. 생명수를 구하기 위해 잠시 떠나는 것이지 이 여행길이 가족과 완전히 분리되는 사정은 아니다. 바리데기는 약려수를 구하려다가 무장신선과 백년가약을 맺었고 아들 일곱을 낳았으니 또 한 가족이 형성되었다. 은수저가 부러져 보이는 꿈에서 양친의 죽음을 예감하고 바리데기는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한다. 남편과 아들들도 함께 떠난다. 가던 길에 양친의 영구를 만난다. 생명수로 부모를 살려 집으로 돌아간다. 부녀는 이제 완전히 다시 만난다. 부친은 과거에 딸에게 저지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갖은 고생 끝에 생명수를 구해 와 목숨을 구해 준 노고에 감사하고 무장신선과 그 아들들도 받아 들인다. 중심인물 가운데 공간을 이동해서 계속 움직이는 것은 딸이다. 바리데기는 집에서 쫓겨나 멀리 버려지고 부모가 찾으면 다시 돌아오고 부모를 위해서라면 저승이라도 다녀와야 한다. 바리데기는 그만치 움직인 공로로 죽은 자를 천도하는 저승신이 된다. 무장신선과 일곱아들 석가세존님 비리공덕 할미 비리공덕 할아버 모두 제를 받아 먹도록 처분되지만 갈등 당사자인 대왕마마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바리공주의 아들들까지 등장하는 인물을 모두 읽으면 삼대기가 되지만 외손이라는 계통을 따져서가 아니라 신화 내부에서의 역할과 기능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고 가족의 중심축은 대왕마마와 바리공주, 부녀관계이다.

9. 칠성풀이(줄 포)

칠성풀이는 천하궁 칠성님과 지하궁 옥녀부인의 혼인으로 시작된다. 등장인물의 관계망은, 칠성님을 중심에 놓고 왼편에 먼저 만나는 옥녀부인이 있고 두 사람 사이에 아들 칠 형제가 있으며 오른편에는 나중 만나는 후실부인(계모)이 있다. 칠성님과 옥녀부인의 결합은 옥녀부인의 세 번에 걸친 청혼으로 성사된다. 칠성님이 옥녀부인에게 장가들러 오는 형식이어서 공간적으로 보면 천하궁에서 지하궁으로 이동한다. 혼례의 과정이 상세하게 묘사된다. 기자정성, 태몽 등의 모티프가 보이고 일곱 쌍둥이가 탄생하고 남자가 여자를 소박주고 자식들을 버리고 떠나버린다. 어머니가 아이들을 용왕의 밥이나 되라고 바다에 버리려다가 하늘이 진동하면서 자신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데리고 돌아와 힘들게 기른다.

아들들이 열 다섯 살이 되어 서당 친구들에게 애비없는 호로 자식이라는 놀림을 당하자 천하궁으로 아버지를 찾아갔다. 옥녀부인은 쫓아가지 않는다. 칠형제는 아버지와 상면하고 계모와 더불어 한 가족

을 이루어 글공부에 진력한다. 칠성님 옥너부인 칠형제가 만들었던 한 가족은 남자들이 차례로 떠나면서 해체되고, 칠성님 재취부인 칠형제가 만드는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다. 계모가 아들들을 해코지할 흉계를 꾸미고, 사슴으로 변신한 생모의 호소로 칠형제는 위기를 모면하고 칠성님은 후실부인을 두더지로 만들어 쫓아버린다. 그제서야 칠성님은 아들들을 앞세우고 지하궁으로 옥너부인을 찾아간다. 옥너부인은 남편과 자식을 모두 잃고 서럽게 울다가 연못에 뛰어 들었다. 일곱아가기가 어머니의 신체를 건져 살려낸다. 옥너부인은 남편과 자식들을 따라 천하궁으로 올라갔다. 지하궁 용왕 바다 연못과 가까운 옥너부인은 이제서야 바로소 공간을 이동한다. 일곱아가기는 북두칠성 남두칠성 서두칠성 동두칠성이 되고 칠성님과 옥너부인은 견우성과 직녀성이 되었다.

칠성풀이 신화에는 부부관계 부자관계 모자관계가 모두 나타나는데 부자관계와 모자관계가 주축이고 그 중에서도 부자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갈등은 두번 다 가정 내부에서 일어난다. 칠성님은 옥너부인이 일곱 쌍둥이를 낳았다고 일방적으로 처자식을 버리고 돌아가서 후실장가를 들어버리고, 계모는 전설 자식 때문에 재산을 잃고 남편과의 인연이 끊어질까바 칠형제를 죽일 계략을 꾸민다. 계모와 칠형제의 대립이 해결되자 애초의 갈등은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풀어진다. 남자가 여자쪽으로 움직여 장가드는데 남성편의 일방적인 선택이나 강요가 아니라 여성의 거둬진 청혼의 결과인 것이 이채롭다.

10. 장자풀이 (줄 포)

장자풀이에는 사마장자를 중심으로 여러명의 가족이 등장한다. 우선 사마장자의 조상이 있고 그 다음으로 부인 아들 딸 며느리 막내딸이 있다. 가족이 아닌 등장 인물도 많다. 사마장자와 비교가 되는 우마장자, 탁발을 온 스님, 저승시왕, 저승사자(해원맥이), 이승사자(이덕춘이), 부왕의 사자(강림도령), 저승에서 문서를 담당하는 최관관 등이다. 가족에 초점이 있으니 가족관계부터 살펴보면 사마장자의 조상, 사마장자 그리고 부인과 자식들이 거론되니 삼대가 등장하는 셈이다. 사마장자가 너무 인색하고 성질이 고약스러워서 조상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다. 장자풀이의 특징은 가족간의 문제를 당사자들끼리 해결하지 않고 제삼자인 저승의 시왕을 통한다는데 있다. 시왕은 조상의 말을 듣고 사마장자를 징치하려고 저승사자들을 내려 보냈다. 사마장자는 며느리덕에 저승길을 면한다. 가족관계의 중심축은 조상, 사마장자, 며느리라는 수직적 관계에 있다. 사마장자는 처음에는 조상님들과 며느리, 제삼자를 개입시키면 저승 시왕과 며느리 즉 위 아래로 다 문제를 만든다.

문제의 해결은 며느리가 맡는다. 중으로 변신해서 찾아온 저승사자를 달래고 시아버지가 꾸민 꿈을 풀고 소강철에게 가 보도록 충고하고 거지잔치를 베풀고 급기야는 사마장자를 잡으러 온 저승 사자 셋을 후히 대접하여 시아버지 대신 말을 끌고 가도록 회유한다. 장자풀이에서는 저승사자들이 이승을 오고가고 이승의 인물들은 움직이지 않는다. 며느리는 중이 자기를 따라 가자고 할 때 응하지 않는다. 장자풀이에서 가장 중요한 가족관계는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이다.

11. 손님굿 (김 동 언)

손님굿의 중심은 아이들에게 역병을 앓게하는 손님신이다. 강남국과 우리나라가 배경이 되면서 손님신은 강남국에서 압록강을 건너 우리나라로 나온다. 손님굿에서 보이는 손님네는 셋인데 중 문신 각 시로 제각각 다른 외양을 하고 있다. 손님굿에는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여러 가족이 손님네를 만나면서 소개된다. 압록강가의 뱃사공의 집에는 뱃사공과 아내 아들 칠형제가 있고 한양의 김장자의 집에 김장자와 부인 아들 칠현이가 살고 그 인근의 오두막에는 노구할미가 혼자 산다. 노구할미는 집안사정이 하도 딱해서 하나 있는 어린 외손녀는 남의 집에 주고 김장자네 집에 유모로 들어가 칠현이를 키워 주고 지금은 방아품을 팔아서 살고 있다. 또 한양의 이정승의 집에는 부인과 아들 삼형제가 살고 최정승 집에는 오남매가 있다. 이 다섯 가족은 부모가 특히 아버지가 손님신을 어떻게 영접했는가의 차이에 따라 자식들이 마마를 가볍게 앓기도 하고 혹독하게 치루기도 한다. 김장자네와 이정승네, 최정승네가 서로 대칭을 이루고 김장자의 왼편에 뱃사공이 이정승, 최정승네의 오른편에 노구할미가 있는 꼴이다. 손님굿에서 중요한 가족관계는 이들 가정 내부의 가족관계는 아닌 듯 싶다. 그 보다는 서두에서 피력된 바 이 세상 아이들의 아버지가 셋인데 낳아준 아버지, 삼신 제왕, 손님네라는 문제이다. 그러니까 손님신과 아이들은 부자관계이고 그 부자관계는 친부가 어떤 사람이냐는데 따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결국 손님굿에서 의미있는 가족관계는 부자관계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부친의 인색함과 고집 탓으로 마마를 앓다 죽은 칠현이가 손님네의 막둥이가 되어 따라 다니는 걸말이 매우 이색적이다.

12. 숙영랑 앵연랑 신가

숙영랑 앵연랑 신가는 1926년 함남 함흥에 김쌍돌이 무녀가 구송한 자료가 손진태 선생의 <조선신가유편>에 실려 있다. 숙영랑 앵연랑 신가(앞으로 줄여서 '숙연 신가' 라고 부른다)는 숙영선배와 앵연각시 부부와 둘 사이에 태어난 거북이와 남생이 두 형제의 내력이다. 서두에는 숙영선배와 앵연각시의 혼인과정의 상세히 서술되는데 남자가 여자집으로 장가 들러 가서 성례를 하고 다시 여자가 남자집으로 시집을 온다. 중년 무자, 기차치성 등의 화소가 보이고 두 아들을 얻는데 큰아들 거북이는 맹인이고 작은아들 남생이는 등곱쟁이 안즌뱅이 이다. 두 형제가 부모를 여위고 거지가 되어 빌어 먹다가 부모가 자신들을 낳기 위해 치성을 올린 금상절에 가서 연당 속에 떠 다니는 생금을 건져 부처와 절을 도금하니 부처님이 거북이의 눈을 뜨게 해주고 남생이의 등과 다리를 펴 주었다. 두 형제는 조선에 나와 살다가 죽어 혼수성인으로 받아 먹게 되었다.

숙연 신가에는 부모와 아들 형제 이 대가 구술되는데 부모는 두 형제의 탄생을 위해서 필요한 존재이고 초점이 되는 가족관계는 형제간이다. 보통 신화에서 아들 형제의 탄생은 두 존재의 대립을 연상하기 쉬운데 이 신화 속의 형제는 그렇지 않다. 두 사람 다 치명적인 불구의 몸이지만 서로 돕고 의지해서 역경을 극복하고 성인으로 좌정한다. 두 형제는 계속해서 움직인다. 집에서 나와 빌어먹으러 돌아다니고 금상절로 갔다가 조선으로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들의 결혼담이나 자식들에 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형제는 어린아이 몸 혼수성인이 된다.

IV. 가족관계의 상대적 범주화

한 가족이 구성되기 위해서는 먼저 혼인이 전제되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본토본 무속신화 자료에서 혼인은 두가지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나는 정식으로 혼례를 치루지 않은 남녀의 결합이고 또 한가지는 정식으로 혼례를 통하여 부부가 되는 경우이다. 시루말 제석본풀이 바리공주가 전자에 속하고 일월노리푸님 칠성풀이 성조풀이 성조본가가 후자에 속한다. 신화의 내용이 가족의 내력으로 서술되면서 일월노리푸님과 성조본가는 부부 단독 세대에서 끝나지만 대부분의 자료 시루말 제석본풀이 바리데기 성조풀이 칠성풀이 숙연신가 등은 이세대 이상 삼세대 또는 사세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

남녀의 결합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나면 가족관계의 중심이 되는 존재가 있기 마련이다. 시루말과 성조풀이에서는 천하궁 당칠성과 성조님 즉 남자쪽이 비중이 크고 바리데기 성주본가 장자풀이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역할이 더 크며 일월노리푸님 칠성풀이에서는 아내가 남편을 이끌어 주고 있다. 가족 중에서 누구의 역할이 더 중요한가 하는 결과는 신화의 전개과정에서 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신화의 주인공들은 서사문학의 인물답게 하늘과 땅, 지하와 물길을 오가며 가족을 이루고 공업을 닦는다. 이동의 주체도 다양하다. 시루말 성조풀이처럼 남자가 움직이기도 하고 바리데기처럼 여자가 움직이기도 하며 제석본풀이 일월노리푸님 성주본가 칠성풀이처럼 남녀 모두 움직이기도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신화는 가족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가족 구성원의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그 중심 인물들이 필수적으로 이동을 수반하고 있다는 것은 가족이 구성되기도 하고 해체되기도 한다는 사실의 표현이다. 본토본 무속신화의 자료에서도 가족은 분리되기도 하고 재결합을 이루기도 한다. 가족의 의의 가운데 중요한 요소가 바로 거주를 같이하는 동거집단이라는 성격이다. 그러므로 가족이 분리되는 사건은 가족을 가족일 수 없게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가족의 해체는 서사구조 안에서 갈등이 야기되기 때문인데 가족관계를 파괴하는 대립은 가족내부에서 생겨나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야기되기도 한다. 제석본풀이 바리공주 시루말 성조풀이 장자풀이 칠성풀이 등의 무가는 가족내부에서 갈등이 야기되며 일월노리푸님 성조본가는 외부로부터 가족을 해체하려는 시도가 들어온다. 가족간의 문제이건 외부로부터의 공격이건 그 파괴의 단초는 남성에게서 비롯된다. 석가여래, 바리공주의 부친, 천하궁 칠성님, 배선부와 소진량 등을 기억하면 될 것이다. 남자들이 금기를 어기고 예언을 무시하고 다른 가족의 구성원을 엿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 결국 가족구성 체계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요소는 가족관계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다. 위의 신화 자료에서는 가족 안에서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 두가지 양상을 짚어낼 수 있었다. 수평적 관계는 부부관계이고 수직적 관계에서는 부자관계, 부녀관계, 그리고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까지도 보여진다. 여기까지 더듬어 온 경과로 보아서 본토본 무속신화에서는 부부관계가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부부 한세대만 서술되며 미구에 부부신으로 좌정되는 성주본가와 일월노리푸님등과 아내가 남편을 도와주고 이끌어가는 성조풀이 칠성풀이 등이 조금 더 무속신화다운 면모를 보이는가 싶다. 물론 신화의 기능과 전승의 양상까지 고려할 때 제석본풀이나 바리공주 신화가 가지는 신성성을 가법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앞 선 연구에서 두 신화가 가장 집중적으로 주목되었기 때문에 제석본풀이와 바리데기 신화에서 드러나는 부자관계와 부녀관

계라는 수직적 관계가 다른 관계에 대한 별다른 검토 없이 폭넓게 인식되어졌다고 볼 수도 있다. 만일에 시각을 조금 바꾸어서 가족안에서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보면 바리데기는 여성이기 때문에 일월노리푸님의 명월각시 성주본가의 황우양씨 부인 칠성풀이의 옥너부인 장자풀이의 며느리등과 함께 묶여지면서 본토본 무속신화에서 가족 가운데 여자쪽의 역할이 남자보다도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창세가를 제외한 열 편의 신화에서 분리되었던 가족들은 다시 만나 가족관계를 회복한다. 시루말에서만 아들 형제만 아버지를 찾아가고 지하국 매화부인은 쫓아가지 않는다. 시루말은 창세가와 제석본풀이신화 등과 겹쳐지고 있다. 앞으로 더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수평적인 가족관계로 형제와 자매를 더 들 수 있는데 형제가 중심이 되는 숙연신가를 보면 보통 세계적으로 가족관계에서 형제가 초점이 되는 신화에서의 형제는 경쟁자로 대결하는 경우가 많은데 숙연신가에서는 정반대이다. 불구의 두 형제가 눈물겹게 서로를 도와서 끝내는 둘 다 성인이 된다.

여기서 본토본 무속신화의 가족구성을 대체적으로 범주화 해본다면 우선 남녀 주인공이 미혼인 상태에서 정식혼례를 거쳐서 결합하고 가족구성원 내부에서 수평적 관계-부부관계가 중심축이 되고 외부로부터 갈등이 야기되는, 여성의 역할이 큰 일월노리푸님, 성주본가,(넓히면 성조풀이, 칠성풀이) 계열과 / 정식 혼례가 아닌 남녀의 만남으로 가족이 구성되고 수직적 관계- 부자, 부녀관계가 중심축이 되며 가족 내부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제석본풀이, 바리공주, 시루말 (넓히면 장자풀이 까지) 계열로 크게 나누어 놓을 수 있겠다. 그러나 이런 차별을 이분법적인 자세로 묶어놓지 않고 그냥 열어 두겠다. 서두에서 밝힌 바 대로 계속해서 제주도 무속신화와 국조신화 등의 다른 신화 자료들을 점검하면서 한국신화의 가족구성 체계를 조직해 나아가도록 하겠다.

V. 과제와 전망

무속신화는 제의에서 구송되는 신가으로써 신화의 구조를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신화가 재연되는 제의의 기능과 연결시켜 이해하였을 때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필자 개인의 능력도 부족하고 이미 이루어진 선행 연구에서도 아직 판가름이 나지 않고 있다. 우선 홀깃 보기에 제석본풀이, 바리데기 신화처럼 수직적 가족관계에 중심축이 이 있는 유형들은 삶과 죽음등 초월적인 주제를 감당하고 있다면 성조풀이,성주본가와 같이 수평적인 가족관계에 중심축이 있는 신화는 의, 식, 주 등의 일상적인 문제들을 그 내용 속에서 많이 다루고 있다.

가족안에서 찾아낼 수 있는 신화적 성격도 가족간의 역학적 관계 그 이상을 훨씬 뛰어 넘어, 부부 부자 부녀 모자 형제 자매 남매 등의 다양성을 능가하는 관계망과 가족과 가족 아닌 사람들과의 관계 까지도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가족관계로 보는 접근에서 어쩌면 각 유형들간의 상호관계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 이전의 문제를 해결하여야만 한다. 등장 인물이 혼자뿐인 신화를 탐색하면서 한국의 거인신화와 선도산 성모설화도 검토하여야겠다. 개인과 가족의 경계선에서 근친상관모티프와 결혼(족외혼)이 얽히는 문제는 개별의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신화의 가족구성체계를 완성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외국신화와와의 비교연구도 계속 모색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대숙. “한국여성신화에 나타난 남방문화적 요소”, 「국사관논총」 제 62집, 국사편찬위원회, 1996.
- 김열규. 「한국문학의 두 문제 - 원한과 가계 -」, 학연사, 1985.
- 김현선. “북방민족과 한국의 건국신화 비교”, 「경기어문학」 9집, 경기대 국문과, 1991.
- 노성환. “한일 왕권 신화”, 울산대 출판부, 1995.
- 서대석. 「한국무가의 연구」, 문학사상사, 1980.
- _____ “한국신화와 만주족신화의 비교연구”, 「고전문학연구」 7, 고전문학연구회, 1992.
- _____ “백두산과 민족신화”, 「백두산 설화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2.
- _____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7.
- _____ “칠성풀이 연구 - 신화적 성격과 서사시적 서술구도 -”, 「진단학보」 65집, 1988.
- 손진태. 「조선신가유편」, 향토연구사, 1930.
- 이광규. 「가족과 친족」, 일조각, 1992.
- 조옥라. “한국고대가족에 대한 인류학적 상상”, 「여성, 가족, 사회」,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열음사, 1991.
- 조현설. “건국신화의 형성과 재편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앙드레 미셀. 「가족과 결혼의 사회학」, 변화순·김현주 옮김, 한울아카데미, 1990.